



## 인천시,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맹견 사고 걱정 끝”

### 맹견 안전사고 제로화 도전...8월 접수 후 9월 기질 평가 시행

인천광역시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

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낮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시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도 반영했다. 수의사와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

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도 구성했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102마리로 등록된 맹견뿐만 아니라 사고건과 분쟁건도 기질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8월부터 맹견 사육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9월부터 기질 평가를 10회 이상 시행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 맹견 사육을 하려면 반드시 기질 평가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민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

#### 화요시인 11회

#### 옥수수

잘 여문 알갱이가  
츄츄히 박힌  
삶은 옥수수를  
쉬엄쉬엄 먹는다

한 알 또 한 알  
이빨로 떼어내면서  
마음속 수많은 걱정도  
하나하나 덜어낸다.

수많은 보였던  
잘디잔 알갱이들  
차츰 끝을 드러내며  
덩달아 가벼워지는 마음.



◆필자: 정경림 (시인)  
『글 사랑문학』 신인상 수상 (2005)  
갯벌 작가상(2017) 갯벌 인상(2019)  
연안문화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갯벌 문학 부회장 재무 이사 겸임  
청라 문학 부회장  
인천서구문화예술인회 문학협회 부회장  
녹청자박물관 운영 이사  
저서 / 시집 <바람의 간이역>  
활동 <인천문단> <갯벌문학> <보리피리>  
<청라문학>

## 변우석 배우 과잉경호, 이학재 사장은 국회서 ‘변명 급급’

### 경호원, 여권·탑승 표 조사, 경찰인가?...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무책임 논란

#### 데스크칼럼



김양훈  
논설위원

지난 12일 배우 변우석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아무리 배우라고 해도 국민 한 사람일 뿐인데 인기가 있다고 해서 사설 경호원이 과잉보호해 경찰처럼 승객 여권과 항공권을 조사했다.

국민 위에서 군림 남용죄 등 의혹을 두고 논란에 휩싸여 비난은 거세다. 취재진의 촬영을 막겠다고 국민이 눈을 뜨고 있는데 플래시를 터트려 고의성 의혹은 권익위로 제소됐다.

경호업체 등 피소를 당했고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다. 변씨가 도착하자 실제 사설 경호업체에서는 10분 동안 케이트 출구를 막았다. 탑승객 국민의 권리를 막은 범죄라고 난리다.

배우 변 씨가 왜 이런 특혜를 받는지 일반 국민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사설 경호원이 경찰 행세를 한 것이다. 경찰은 사설 경호원들과 소속사 및 공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변 씨 사설 경호와 관련해 나온 범죄 의혹은 한 두어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경찰도 불특정다수 국민을 불신 검문할 때 목적 등을 밝히고 검문을 한다.

경호업체는 민간인을 공공의 장소에서 어떤 이유로든 검문할 수 없고 조사할 근거가 없다. 경찰도 아닌 자들이 개인정보 신상을 확인했는데 국가가 경호원에게 사법 권한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신원을 알 수가 없는 경호원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자칫 범죄로도 이용될 소지가 있지만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국민은 내 권리가 침탈당했다고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건 실태가 이리함에도 공사 책임자인 이학재 사장은 치외법권을 만든 책임이 있는데 사건이 터지자 땀땀 식 행정을 위해 경호를 더 강화한다고 밝혀 더 문제를 키웠다.

변 씨는 연예인일 뿐 그 무엇도 아닌 그냥 국민이다. 그런데 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국회 질의에서 사설 경호 남용에 대해 국민께 공식 사과부터 하는 것이 책임자 사장으로서 당연했다.

그러나 이학재 사장은 변명만 급급해 자질론이 부상했다. 국민은 정부를 향하여 사장을 해임하라는 원성과 사건이 불거지자 사설 경호업체와 카르텔 의혹도 제기된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공항에는 엄연히 공항경찰대가 있고 범죄를 수시로 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학재 사장은 국회 질의

에서 경호는 경찰 책임이라고 발언했다가 의원이 규정을 밝히자 착각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책임자란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공사 규정도 몰랐다는 것이다. 얼버무리는 회피성 모습을 지켜본 국민은 참 무능하다고 한다. 월급만 촉내는 사장이라고 한다.

배우 변 씨와 관련해 댓글에는 인기를 위해 일정을 공개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 일색이다. 또 국민도 인천공항공사 방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난은 거세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학재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것이 국민의 주문인데 윤 정부가 해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국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논란이 일자 소속사 측은 과도한 경호에 사과했다. 배우 변 씨는 출국과 달리 입국 때는 살짝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입국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없는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설 경호와 관련해 강요죄, 협박죄 등 남용과 관련해 지시한 책임자 처벌은 불가피한 의견을 냈다. 또 인천공항공사와 사설 경호는 아무런 혐의도 없었다고 전해졌다.

이학재 사장은 사설 경호 파문에 있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국민적 시각은 매우 곱지 않은 것은 물론 배우 특혜를 방관했다는 책임은 사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고 여론이다.

#### 화요시인 12회

#### 바다(나랑)

해 저문 바다  
어둠 물들고

달 뜨고 별 뜨니  
빛의 대향연

멀리  
사이사이 비집고  
내리꽃은 혜성 하나

반짝이는 검붉은 바다  
그를 삼킨다

얼마나 힘들었나?  
작열하는 태양  
거센 폭풍우  
외로움, 고독, 창조

내가 찾아간 건지  
내가 기다리다 찾아온 건지

불사르며 꼬리만 남긴 나를  
안아준다 품어준다



◆필자: 이화복 (시인, 수필가)  
학력 미) 피트먼트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전) 청운대학교(인천 캠퍼스) 교수,  
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 위원  
현) 연안문화회 이사  
현) 국민의힘 남동을 부위원장  
현) 자유시민 아카데미 대표  
현) 꿈을 주는 사람들(공사) 회장